

아시아와 우주, 인간의 미래 문명을 사유하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오는 8월 23일까지 문화창조원 복합전시 3관과 4관에서 선보이는 주제기획전 '코스모 아시아 피플-행성 시대 피플을 재발명하기'를 선보인다. 전시장 입구를 지나 통로에서 접할 수 있는 이영노 화백의 드로잉과 채색화 '작품'.

긴 통로에 들어서자 화면 가득 몸을 흔드는 듯한 형상과 정면으로 마주한다. 단순화된 검은 형상은 붉고 푸른 오방색 선을 두른 채 자유롭게 화면을 노닌다. 어딘가 즉흥적인 움직임은 마치 춤의 리듬을 닮았다. 생명체처럼 꿈틀거리는 형상은 보는 이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긴다.

작품은 이영노 화백의 채색화 '작품'(1974·광주시립미술관 소장)이다. 공식 명제는 '작품'이지만, 작가의 아내이자 동반자였던 박인경 여사가 '춤'이라는 이름을 제안한 이유를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선과 형상이 만들어내는 율동감은 정적인 회화보다 몸짓에 가깝다.

그 작품으로 향하는 긴 통로에는 1970년대 초반 드로잉 작업들이 함께 걸려 있다. 굵고 빠른 선, 반복되는 인체 형상, 압축된 움직임은 이후 대형 회화로 확장되는 조형 언어의 흔적처럼 읽힌다. 전시장 입구에서부터 관람객은 단순한 작품 감상을 넘어 하나의 흐름 속으로 천천히 진입하게 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당장 김상욱)이 지난 14일 개막, 오는 8월 23일까지 문화창조원 복합전시 3관과 4관에서 선보이는 주제기획전 '코스모 아시아 피플-행성 시대 피플을 재발명하기'는 이 같은 감각의 연장선 위에 놓인다. 급변하는 기술 환경과 기후 위기, 인류세 시대 속에서 아시아와 인간, 우주적 상상력의 관계를 탐구한다. 인간과 자연, 기술과 공동체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존재라는 점에 주목하며, 아시아적 시각에서

동시대 문명을 다시 바라본다. 과학기술과 전통적 세계관, 생태 감수성 등이 교차하는 지점을 다양한 동시대 미술로 풀어내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사유의 경험을 제안한다.

전시장에서는 8개국 국내외 작가들의 영상, 설치, 미디어아트, 사운드 작업 등 총 102점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이들은 인공지능(AI)과 데이터, 생태와 신화, 우주와 기억 등 다양한 키워드를 바탕으로 인간 존재와 문명의 방향성을 질문한다.

은 전시를 통해 오늘날 기술 중심 사회가 만들어내는 변화와 불안, 그리고 새로운 공존 가능성을 감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일부 작품은 관람객 참여형 방식으로 구성돼 인간과 기술, 환경 사이의 관계를 보다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한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전시 전반에 흐르는 인간의 생명성과 관계성이다. 전시장 초입에서 마주한 이영노의 '춤' 역시 그 흐름 속에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몸짓은 선이 되

며 마지막으로 전시 연계 콜로키엄은 오는 8월 4일과 5일 '코스모 아시아 피플: 지정학에서 행성성으로'라는 주제로 이뤄진다. 이택광이 모더레이터를 맡고 김향과 고우분 고이치로, 남수영, 라몬 보벤 구이레모, 루카 레이 장, 마노지 NY, 사이토 고헤이, 위니이, 남상석, 황호덕 등이 대담자로 참여해 전시를 관통하는 핵심 개념과 문제의식을 다각도로 논의할 예정이다.

김광희 기획자는 "순서 없이 우연한 조합으로 나열한 세 가지 낱말에서 '코스모'는 나뉘 갈라지는 세계가 구성하는 다원적인 것, 그리고 결국 그러한 세계들이 이뤄야 하는 다성적 환경을 제안한다. '아시아'는 비서구적 세계의 독특한 서사와 실천을, '피플'은 개개인의 집합이 아닌 공존과 평등의 상황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시엔 참여한 아시아 31인의 예술가는 다성적인 우주의 조화와 신비, 비서구적 주제들의 삶,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난 피플의 가능성에 있어 익숙해져 버린 미래를 낚시해 하고 다르게 상상할 수 있는 감각을 일깨운다"고 덧붙였다.

김상욱 전당장은 "이번 전시는 인류가 직면한 복합적인 위기 속에서 인간과 공동체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고, 미래를 새롭게 상상할 수 있는 아시아의 다양한 시각을 살펴보는 자리"라면서 "이번 전시가 5월 광주가 보여준 상생의 정신을 되새기며, 우리를 둘러싼 세계와 미래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글·사진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코스모 아시아 피플' 8월 23일까지 ACC 문화창조원서 8개국 31팀 102점 작품·퍼포먼스·상영화·콜로키엄 등 "광주 상생의 정신 상기"… 전시 연계 낭독 상영회 진행도

이인성 작가의 '가을 어느 날'과 서세옥 작가의 '두 사람'. 싱가포르 난양 화풍의 회화들은 아시아의 피플이 어떻게 끊임없이 재발명돼 왔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조선 후기 우주관의 변화를 담은 보물 '신·구법천문도'를 통해 서로 다른 세계관이 공존하는 다성적인 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 전시 말미에는 아시아 디자이너들이 참여한 '행성 시대 피플' 캠페인 포스터 프로젝트도 소개된다. 1980년 광주의 비극을 증언하는 윤형근의 'Burnt Umber(다색)'는 위태롭게 흔들리면서도 서로를 지탱하는 기동 형상을 통해 당시의 아픔과 굳건한 연대의 힘을 보여준다. 관람객

은 선은 다시 우주적 리듬으로 확장된다.

전시와 연계된 프로그램도 순차적으로 마련된다. 전시연계퍼포먼스는 지난 14일 안은미 작가와 15~17일 존 클랭, 6월 13일 안보미 작가의 무대로 이어진다. 안보미 작가의 퍼포먼스에는 이스칸다르 무다, 아불 하피즈 드 암룰라, 아흐마드 미르자 등이 퍼포머로 참여할 예정이다.

전시 연계 낭독 상영회는 오는 7월 4일부터 5일까지 문화창조원 극장3에서 진행된다. 유운성의 진행으로 경인콜레티브와 소오현, 장보운 작가가 참여한 전시의 주제와 연결되는 영상·텍스트 기반의 사유를 확장한다.



'코스모 아시아 피플-행성 시대 피플을 재발명하기'에 출품된 이인성 작가와 이영노 작가의 작품들.



'코스모 아시아 피플-행성 시대 피플을 재발명하기' 전시 전경.

부부예술가 포착…개성적 삶의 찰나

전남 영암 소재 아천미술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특별 기획초대전을 지난 1일 개막, 오는 6월 25일까지 제1전시실과 야외 전시장에서 '머무는 순간의 다름'이라는 타이틀로 갖는다.

조각가 위재환씨와 회화작가 이진상 부부가 각자의 시선으로 포착한 삶의 찰나를 펼쳐내는 자리인 이번 전시는 '부부'라는 긴밀한 관계 안에서 형성된 두 개의 시선이 어떻게 서로 다른 매체로 발현되고, 하나의 풍경으로 어우러지는지에 주목한다. 위재환은 입체 조각을 통해, 이진상은 평면 회화를 통해 각자의 예술적 영토를 구축하면서도 '함께하는 삶'이라는 공통된 정서를 공유한다.

먼저 위재환 작가는 '몽상가'(Dreamer) 시리즈를 통해 현실과 상상의 경계를 탐구한다. 유년 시절의 회상에서 출발한 그의 작업은 이 시대 가정들이 짊어진 삶의 무게와 가족을 향한 소중한 마음을 담고 있다. 허공을 향한 계단, 구름, 길게 늘어진 기둥 등 초현실적인 상징물들은 작가만의 독자적인 조형 언어로 시각화돼 관람객에게 묘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위 작가는 작가노트에서 "몽상가는 꿈꾸는 사람이며 작가 자신이다. 가난했던 유년시절의 회상으로부터 출발한 본인의 개인적 이야기는, 성인이 돼 가정을 갖고 소중한 가족들에게는 풍요롭고 행복한 일



이진상 작 'the lives of modern people'

상을 선물해주기 위한 이 시대의 보편적인 가정의 이야기가 담겨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진상 작가는 동물의 형상을 빌려 현대인의 내면과 관계를 성찰한다. 인간 관계에서 오는 피로감과 고립감을 반

려동물과의 정서적 교감을 통해 치유하는 과정이 화폭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특히 인간과 가장 밀접한 '개'를 주요 소재로 삼아, 동물의 얼굴에 인간의 희노애락을 투영함으로써 현대 사회의 소외된 감정들



위재환 작 '몽상가'(dreamer)

을 따뜻하게 어루만진다.

특히 이번 전시 기간 중에는 지역 사회와의 교감도 활발하다. 영암 인근 학교 학생들의 단체 관람이 이어지고 있으며, 전시장에서 직접 작가와 대화하고 창작의 도를 듣는 '작가와만의 만남' 프로그램이 진행돼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작가는 작업노트를 통해 "인간 대신 차라리 언어적, 문자적 소통으로부터 자유로운 반려동물을 사랑과 애정의 대상으

로 인지하게 대하고 의지하면서 반려동물들은 그러한 작업에 있어 나에게 정서적 교감을 나누며 외로움을 극복하거나 상처를 치유하는 나름의 행복을 도모하는 대상"이라고 전했다.

김현희 아천미술관 학예실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자신의 관계와 감정을 천천히 돌아보는 위로의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그날의 목소리, 다시 도청으로"

ACC, 옛 전남도청서 '오월 이야기' 운영

1980년 5월의 마지막 항쟁 지였던 옛 전남도청. 긴 복원 공사를 마친 공간에 다시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진다. 이번에는 총성과 함성이 아니라, 46년 세월을 가슴에 묻고 살아온 오월 어머니들의 목소리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5·18민주화운동 46주년을 맞아 시민 참여 프로그램 '가슴에 묻은 오월 이야기'가 복원된 옛 전남도청 별관에서 새롭게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2018년 옛 전남도청 시민 개방과 함께 시작된 ACC 대표 오월 프로그램이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16차례 운영됐고, 22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단순한 역사 강연이 아니라 오월 가족의 증언과 현장 해설을 통해 민주주의의 시간을 직접 마주하는 자리로 자리 잡았다.

올해 가장 큰 변화는 공간이다. 프로그램 무대가 되는 옛 전남도청은 1980년 5월 시민군이 끝까지 남아 항쟁했던 장소다. 복원을 마친 도청 별관에서 다시 프로그램이 열리면서 증언은 단순한 이야기를 넘어 '현장 그 자체'가 된다.

참가자들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해



설사와 함께 도청 일대를 걸으며 당시 항쟁의 흔적을 따라간다. 총탄 자국과 계단, 복도와 회의실 같은 공간들이 오월의 기억을 입체적으로 되살리는 셈이다.

올해는 오월 어머니들의 참여 방식도 달라졌다. 기존에는 회차마다 1명의 어머니가 참여했지만, 올해는 회차별 3명이 함께 무대에 오른다. 모두 14명의 오월 어머니들이 시민들과 만난다. 서로 다른 사연과 상실을 안고 살아온 이들이 한자리에 서 기억을 꺼내놓는다.

진행 형식 역시 강연 중심에서 인터뷰 형식으로 바뀌었다. 사회자와 어머니들이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돼 시민들이 보다 자연스럽게 이야기에 스며들 수 있도록 했다. 거창한 수사가 아니라, 긴 세월 마음속에 남겨둔 기억과 감정을 담담한 언어로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프로그램은 오는 25일까지 매일 오후 2시부터 3시30분까지 특별 운영된다. 이후에는 6월까지 모두 10차례 이어질 예정이다.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ACC 누리집을 통한 사전 예약과 현장 접수가 가능하다. [행해은 기자 nabi@gjdream.com](mailto:nabi@gjdream.com)